

바다 생태계 파괴되면 인류 미래도 어두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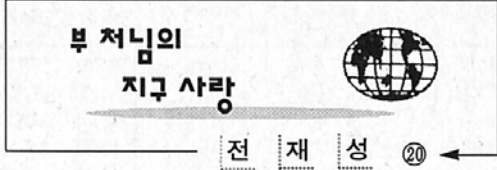
해양오염

부처님은 대루탄경(大樓炭經)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열부제는 큰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바다는 깊이가 8백40만 유순이고 그 넓이는 끝이 없다고 하였다. 이쯤되면 무한하기만 한 바다의 생태계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최근까지 모든 사람들은 바다의 광활함에 압도된 나머지 바다는 무한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에 의하면 지구는 수많은 우주(三千大千世界)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구상의 바다는 그 표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바람에 의해 줄어들기도 하고, 비가 내려 늘어나기도 하며, 세계가 괴멸할 때에는 태양 열에 의해 사라져버리는 무상한 세계이다.

바다는 광활하지만 온갖 것을 무조건적으로 한계없이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얼마전에 여천 앞바다에서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되어 1백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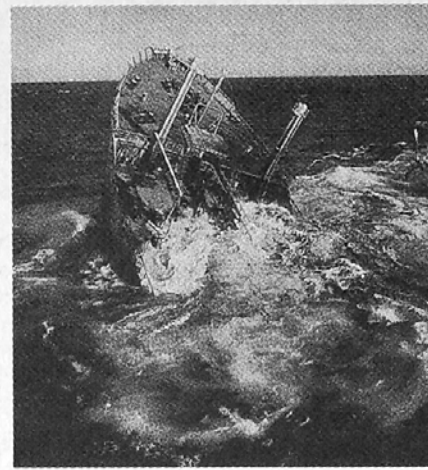
톤 가량의 유독성 병커C유를 유출시켰는데, 이로 인해 인근 연안생태계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 1989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이 회복되기까지는 2백년이나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해양오염의 충격은



기름띠·폐기물·해안개발이 요인...수백년 걸려야 회복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스 발데즈호의 무려 4만2천톤에 이르는 원유유출 사고로 한반도의 2백배에 이르는 연안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당시에 사고해역에서 8백50km나 떨어진 지역의 물새떼가 모두 사멸할 지경이었다. 아직도 유출된 기름의 12%가 바다속에 가라앉아 연안생태계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15년은 지나야 서서히 바다가 제 모습을 찾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91년 걸프전 때의 1백만톤의 원유

세월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사회에서 지속적인 해양오염은 범지구적인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양오염의 3/4은 육지에서의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바다의 오염은 이렇듯 심각하게도 연안수역을 살찌우는 바로 육지의 강들을 통해 비롯된다. 영양분, 유기물질과 침전물, 병원균, 분해되지 않은 중금속과 독성물질, 원자력폐기물에 의한 열오염 등이 다. 이러한 물질들은 연안지역에서 부



해양은 일단 오염되고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단시간에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다.

를 개발하기 위해 습지에 물을 빼거나, 갯벌을 없애거나 산호초나 해초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영양분과 침전물 및 독성물질을 가두는 역할을 했던 지대가 소멸되어, 연안수역이 쉽게 오염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오염은 연안지역뿐만 아니라 광활한 외양이나 심해에까지 미치고 있다. DDT를 비롯한 분해되기 어려운 많은 유독성 화학물질은 연안수역이나 대기를 통해 대양으로 퍼져나가고 쓰레기나 기름때는 전 세계 주요 해상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심해는 직접적으로 군사 폐기물이나 핵잠수함, 핵실험 등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광활한 외양에서도 화학오염물질은 표층수에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중금속오염은 수면근처가 심해보다 10~100배가 높고, 살충제의 잔류물은 수백배가 높다. 외양에서 표층수는 미생물의 서식지로서, 오염된 표층수는 먹이사슬을 타고 인간을 포함한 집 포유동물의 지방속에 축적되고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나는 당신을 진실로 존경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처님같이 항상 받들고 존경할 것입니다. 왜하면 당신은 능히 보살도를 수행하여 부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이유 때문이다. 하심공부는 인내를 기르고 지극한 신심을 일구어 내는 기본 트레닝으로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수행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산문(山門) 밖에서의 하심공부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모든 일에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호감을 사고 결국 남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겸손한 사람은 싫어할 사람은 아무

금주의 주제

下心하기

깨달음으로 가는 기초 수행

'나' 낮추고 이웃공경하면 화목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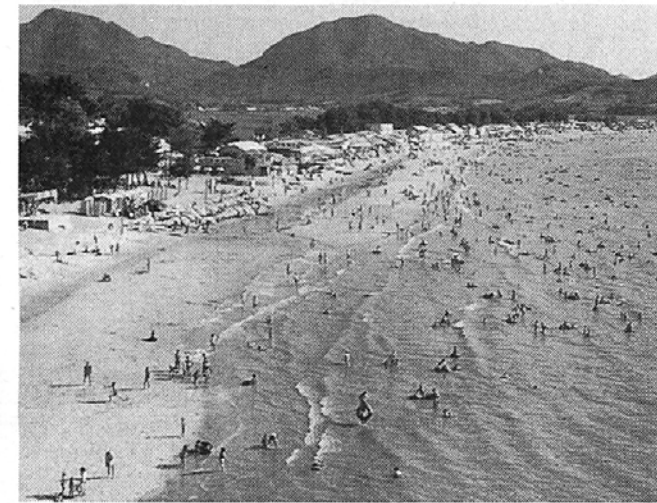
이 말했다고 한다. 사람은 모두 불성(佛性)을 지녔기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도 남과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설 명이다. 동시에 개인은 최소한 자기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이웃을 공경해야 한다는 명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남을 공경하는 일은 먼저 자신을 낮추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처음 짚어 들어간 행자들이 하심(下心)공부를 위해 쉴 새없이 절을 하고 절 마당을 쓸고 물을 길고 공양을 짓는 것도 이러

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마음을 사고 끝내는 외톨이가 된다. 나를 낮추는 마음은 언젠가 나와 이웃을 함께 함께 존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낮은 연못에 많은 물이 고이듯 겸손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른다. 버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불자들은 생활속의 수행이 깊어질 수록 이웃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나를 낮추는 생활은 다름없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다.

신행수첩



◇ 학업에 쫓겨 찢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름 비는 마음을 열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련장이다. (사진은 변산해수욕장)

공부 지루하면 잠시 잊고 붓글씨·풍물 배우러 가자

학기중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시간이 나질 않는다. 과외공부 등으로 다른 학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은 신나는 방학이다. 깨끗이 어머니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 학기중의

지루한 공부를 잠시나마 잊어 버릴 수 있다. 개금사회복지관은 어린이와 주부의 정서함양을 배가하는 '어린이 붓글씨 교실'(매주 화, 수, 목 4시30분~6시)과 '주부 서예교실'(매주 화, 수, 목 3시~4시30분)을 개강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풍물교실'(매주 금요일 1시~2시30분)도 열려놓고 있어 똑같이 학생의 입장이 되어보는 신명나는 기회가 될 듯. (051)893-5034

땅끝마을·미항사 참배 부산불교교육원 답사여행

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은 불자들의 의식 고양과 부산지역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매일 정기적인 답사여행을 마련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진행되는 7년 전통의 '우리문화여행'은 8월13일~15일까지 전남 땅끝마을을 출발, 미항사 대웅사 일지암 백련사석탑 다산초당 도갑사 무위

사 보림사 운주사 쌍봉사를 거쳐 선암사에 도착하는 불교문화 답사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종착점인 백양산 선암사(仙巖寺)는 신라 문무왕 15년(675) 원효대사가 개창한 고찰로서 인도에서 옮겨온 석불이 봉안되어 있고, 절 뒤에는 해묵은 동백숲이 울창하고 오른쪽으로는 빼어난 절벽과 노송이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는 성지다. (051)466-4080

스님훈장님 나타났어요 법왕사 한문·영어학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려는 노력은 각계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사찰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한문과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대구 법왕사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교성과 중학성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여름 한문·영어학교'를 열었다. 방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열리게 되는 여름학교는 매주 일

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9시반까지 열린다.

한문은 이우집 아저씨같은 스님이, 영어는 사촌누나같은 예쁜 보살님이 맡았다. 언제라도 접수 가능하며, 무료강의이니만큼 청명한 산사의 공기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실력을 늘려보자. (053)766-9088

몸과 마음 조화하는 수행 대구구도회 요가스쿨

지옥, 아귀, 축생, 이수라, 인간, 천인의 육도중생중 인간을 으뜸으로 꼽는 까닭은 몸과 마음이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 깨달음을 얻기위한 수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의 몸을 받게 한량없는 복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몸은 바로 자성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신성한 사원, 이 몸과 마음의 조화로 온 균형을 통해 수행에 큰 도움을 얻고 있는 모음이 있다.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회장 권오주)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인도 사이영가 요가스쿨을 이수한 현천스님(양산 흥룡암)을 초빙하여 요가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053)654-8533

옛장단에 희노애락 풀어 조계사 한국무용 강좌

인간의 육체를 표현매체로 삼아 사상, 감정, 표정, 정서 등을 울동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무용이라 한다. 특히 한국전통민속무용은 우리의 생활속에서 시대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전승돼 온 것이다. 강강술래, 뚝다리밟기, 살풀이, 승무, 봉산탈춤 등은 우리의 전통무용의 대표적이다.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는 매월초 1개월간의 과정으로 전통 한국무용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화·금요일 오후2시 정화회관 2층에서 한순옥씨를 강사로 초청하는 만큼 전통 한국무용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2)720-6742

'우리 자연의 숨소리 느껴봐요'

'맑고 향기롭게' 본부 남양주로 식물탐사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 여기 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연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정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껴보는 것이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가 오는 9월 경기도 남양주군으로 식물탐사를 떠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라는 취지가 말해주듯이 우리 삶의 터전속에서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여행이다.

이번 탐사에서는 수목원의 연구원이 직접 식물들의 세계를 안내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면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될듯하다. 식물탐사시만큼 돋보기가 꼭 필요하며 긴 바지에 긴 팔옷,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02)741-4696

생활속의 불교 35

스트레스 받기 싫거든

공수래 공수거란 물질만을 대상으로 한 경구가 아니다. 마음까지를 포섭한 말이다. 우리 모두는 본래 열린 마음, 빈 마음인데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닫힌 마음으로 살게 된다. 빈 손, 활짝 편 손이 아니라 주먹 쥔 손으로 또는 조막 손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자기 사랑이란 참다운 자기 사랑이 아니라 뒤집힌 꿈이다. 왜하면 자기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이 온갖 번뇌를 길러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만·아집이라는 것을 버린다면, 소위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린다면 그 순간 삶이 얼마나 홀가분한지를 생각해 보라.

짜증낼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고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려면 빈 마음이 되라, 열린 마음이 되라. 잘 안되거든 노력하라. 되는 것 보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마음공부가 아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요, 공부이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라.'

자기를 낮추는 하심을 가리킴이다. 불교의 오체투지도 하심의 실천을 뜻한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바로 열린 마음이요, 빈 마음이다.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울타리를 헐고 저 넓은 들판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허공 같은 마음이 되겠다는 것이다.

열린 마음엔 포섭할 게 따로 없고 버릴 게 따로 없다. 고로 대립이 없다. 자비가 있을 뿐이다. 자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개중에 마음공부하다가 조금 콧김이 더워지니까 '내노라'하며 고개를 뺏듯이 세우는 이들이 있다. 비유하자면 다시 채우는 격이다. 그건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다. 그렇게 다시 닫힌 마음은 더욱 어렵다.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막무가내가 되기 때문이다.

진정 자기를 사랑하려면 아만·아집·아상을 버려라. 그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요, 불법공부의 길이이다. 그래야 중생인 나로서가 아니라 참 나로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참 나로 살라고 누구도 강조하셨다.

협찬 : 허선태 · 이화

